

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육아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가정의 통합적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배려와 더불어 건강, 안전, 영양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양육 기술 및 정보 지원은 물론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다. 본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가정 및 가정의 유형별(양부모, 한부모, 조

손가정, 다문화가정 등)로 자녀양육실태와 정책 지원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 영유아 지도시의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전달 방식 등이 가족유형에 따라보다 세분화해서 제시되어야 하겠다(표 1 참조).

넷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사업내 전문인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책임자나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영유아를 지도하지는 않더라도, 취약계층 가정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사업이 활성화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필요하다.

육아정책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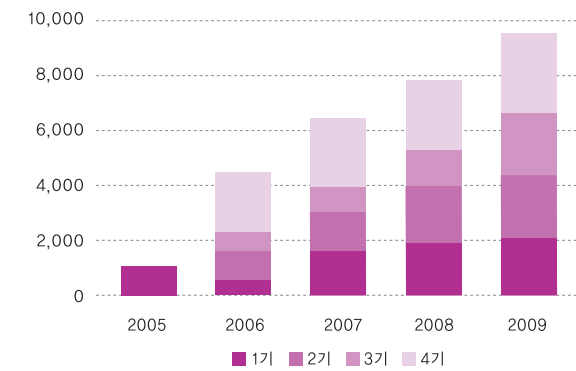
제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 발표 - 어린이집 10개 중 6개 평가인증 통과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평가인증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255개소(60.5%, '10. 3월 기준)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인증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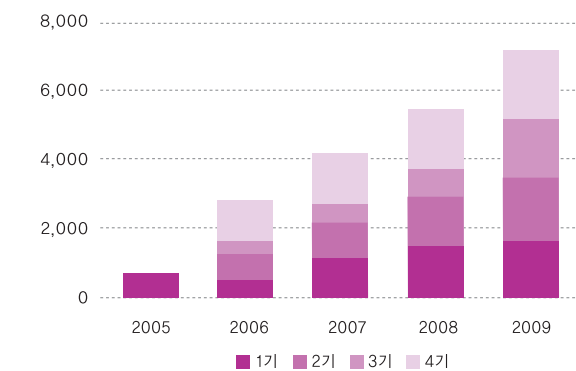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가인증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주요 목적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평가인증 참여신청 연도별 추이〉



〈평가인증 통과 연도별 추이〉



저녁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실시,
'11년 전국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존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하며, '09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13%가 지정 운영중이다.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기간: '10년 4월 ~ '10년 12월 (9개월)
- ▶ 대상지역: 16개 시·도에서 신청한 76개 시·군·구
- ▶ 사업내용: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월) 지원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 반 기준)
 -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 완화: 3인 → 2인
 * 소요예산 약 45억원(약 3,500개 시간연장반 운영 확대 기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09년 5,000명 361억원에서 '10년 6,000명 408억원이다. 금번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약 2,300개의 어린이집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00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0%)로 확대되어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340개 운영
- 1,000여개의 공·사립유치원이 함께 참여,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원비 절감 효과 기대

지난 4월 29일(목)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원비 절감과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340개의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는 지역내 유치원간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유치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유아교육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운영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경북 124개, 경기 80개, 강원 34개, 경남 22개 등 총 340개의 "Together Network(지역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네트워크별 활동 형태는 프로그램 공동활용형 네트워크, 종일제 공동 운영형 네트워크, 운영 자원 공유형 네트워크 등과 같이 특정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여러 분야에서의 종합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네트워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175개의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협력네트워크 사업에 흡수,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시·도 교육청과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네트워크를 발굴·육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모별·유형별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